

OECD/DAC POVNET 총회 결과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 빈곤퇴치 네트워크(POVNET) 전체회의가 2010.3.23-24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에서는 MDG 달성 촉진 및 UNGA기여방안, 네트워크 산하 작업반 활동성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는 KOICA 정책연구실 변숙진 직원이 참석하여 아래와 같이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 보고하였다.

I. 핵심 요지

UN 총회(2010.9) MDG 중간평가에 반영될 DAC/POVNET의 MDG 이행 평가 및 POVNET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 회원국들은 MDG가 계속적으로 유효한 프레임워크임을 확인하고, 인적 자본에의 투자, 식량 안보 등 개발에 대한 균형적 접근의 필요성과 수원국 정부의 역할 및 사회적 보호의 중요성에 합의함. 또한 DAC 동료심사에 POVNET 빈곤 친화적 성장 등의 주요 이슈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함.

2011~12년간 DAC 작업 및 예산 계획(PWB) 관련 POVNET PWB 템플릿을 점검하고, POVNET의 비교우위 및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II. 주요내용

가. MDG 이행평가관련 POVNET 역할 및 방향성 논의

사무국에서는 현시점이 MDG 이행 평가 및 post-2015의 논의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라 판단하고, 자원 및 소득의 적절한 분배의 관점을 강조하였음. 또한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의시 DAC나 DAC/POVNET의 좁은 범위에서가 아닌 NGOs, 시민사회, 민간섹터로 행위 주체를 확장하는 시각이 필

요하다고 봄.

나. 이행(Implementation) 태스크팀 활동 보고(2009/10 PWB)

(빈곤 가이드라인의 동료검토 반영) POVNET 사무국은 POVNET의 주요 성과물인 빈곤감소 가이드라인 및 빈곤 친화적 성장이 DAC 동료검토 내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다음 주(2010.3.30 예정)에 있을 동료심사 방법론에 대한 DAC 회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POVNET의 관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설명함.

(Train4Dev Network) 공여국 합작의 개발 네트워크인 Train4Dev는 OECD DAC POVNET과 공동으로 빈곤 친화적 성장에 관한 학습행사를 준비해 왔으며, 2010~11년 동안 8개 개도국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계획한 바 있음. 2009년 탄자니아 시범 학습 행사 이후 프로그램 재정비 중이며, POVNET의 빈곤 친화적 성장을 주제로 농업, 인프라, 무역 섹터에서의 실용적인 정책 도구들을 공여국 현장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소개하는 것을 학습 행사의 내용으로 함. 주제는 국별로 다를 수 있음.

(사회적 보호를 위한 ODA)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관련 ODA 통계실적 계상 개선을 위한 회의가 열린 바 있으며(2009.10.21~22), 이러한 노력은 DAC 및 공여주체들이 사회적 보호 관련 ODA 실적을 체계적으로 집계/평가하여 원조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임. 동 회의를 통해 제안된 1) CRS(Creditor Reporting System) 코드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해당되는 자료 검토, 2) 사회적 보호에 포함될만한 활동 검토, 3) '사회복지서비스'에 추가될만한 다른 범주의 활동들 검토(공여국의 사회적 보호 관련 지원 활동에 더욱 완성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함)에 따라 독일, 호주, EU, 영국은 시범적으로, 사회적 보호 ODA 측정 및 모니터링에 대한 자국의 접근 방식을 질의응답의 형태로 공개하였음. 질문은 1) 사회적 보호 관련 ODA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2)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정의하는가, 3) 사회적 보호를 위한 ODA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가(관련 목적코드를 만들었는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국-DAC 스터디 그룹) 2009년 1월, International Poverty Reduction Center in China(IPRCC)의 제안으로 설립된 중국-DAC 스터디 그룹은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빈곤감소와 성장 개선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고 정보를 종합하여 국제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짐. 동 스터디 그룹은 POVNET이 발전시켜온 정책 가이드נס를 따라 1) 농업, 식량 안보 및 농촌 개발, 2) 인프라, 3) 기업을 육성하는 환경 만들기라는 3가지 주제에 집중하고 있음. 동 회의에서는 아프리카가 중국의 경제 목표와 활동을 채택하는 전략을 핵심 주제로 토론하였음. 중국에서 기업 부문

의 활성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마찬가지로 중국 기업이 아프리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한 것에 동의함. 아프리카 내 중국의 역동적인 경제활동은 환영 할 만하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개발협력 정책 대화 및 행동에 중국이 참여하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이 이루어졌음. 다만, 중국은 아프리카 대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공여기관들에 새로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함을 확인함.

다. 역량강화(Empowerment) 태스크팀 활동 보고(2009/10 PWB)

(GOVNET과 합동 세미나 준비) 빈곤 친화적 성장, 인권, 젠더 부문에서의 잠재적인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최근 빈곤 친화적 성장과 인권의 결합을 통한 개발 기회를 확인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더 큰 개발 성과를 위해 공동의 접근이 가능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공유함.

GOVNET 사무국은 실무적인 단계에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공동의 역량강화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처음인 만큼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라고 평가함. 탄자니아는 최빈곤층의 관점과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였으며, EU, GENDERNET을 비롯하여 대다수 참가국들은 거버넌스의 역할이 MDG 이행에 중요성을 가지며, 공동 노력의 시점으로 현재가 매우 적합하다는 것에 동의함.

라. 2011~12년간 POVNET PWB 템플릿 검토

사무국에서 DAC 회의(2010.3.16)에서 도출된 향후 2~4년간의 DAC 작업 이슈 및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경제 성장 및 정책’ (예산계획 IV에 해당)에 포함된 POVNET의 주요 의제인 녹색 성장과 빈곤, 지구적 식량 안보, 사회적 보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공유함.

III. 관찰 및 건의

(DAC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 적용 노력 필요) 국제원조규범을 형성하고 모니터링을 총괄하고 있는 OECD/DAC에 가입함으로써, KOICA는 국제규범에 부응하는 선진화된 원조 체계 수립을 위해 DAC 산하 작업반 규범 적용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DAC/POVNET은 빈곤 친화적 성장 가이드라인을 동료평가에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KOICA는 향후 동료평가에 대비하여 동 가이드라인 숙지 및 관련 지침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KOICA 정책과 빈곤 이슈의 연계성 강화) DAC 회원국을 포함한 각 공여주체들은 2010년 9월 UN 총회의 MDG 이행평가에 대비하여 자국의 MDG 이행 가속화 및 성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됨. KOICA는 올해 정책이슈별 연구과제의 하나로 빈곤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수립을 목표로 설정한 바, 국제사회 내 MDG 1(절대빈곤 및 기아퇴치) 목표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음을 주목하여, MDG 1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POVNET 핵심 논의 내용들(사회적보호 구축 및 녹색성장)을 follow-up 하고, 관련 KOICA 정책 및 전략 마련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됨.

(KOICA 무상원조사업의 가시성(visibility) 제고) POVNET 산하 태스크팀에서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역량강화 활동 모범사례 수집에 KOICA 무상원조사업의 성공 사례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빈곤층을 위한 성장을 위해 중요한 농업 및 인프라 분야의 경우, 우리의 개발경험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라 할 수 있으므로 동 POVNET 역량강화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MDG 이행노력 및 성과에 대한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더 나아가, KOICA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무상원조사업을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